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신앙과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면, 그분의 가르침을 격언이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조언 혹은 처세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며 취사선택하고 조합하는 주체가 됩니다.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도덕적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차별성이 없으며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종교 의식과 고행으로 점철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사도신경).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스탠리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 의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가 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전했습니다. 죽어 가던 의사는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조용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 오자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의사가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간절히 바라온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자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 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니까?
- ②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니까?